



'전체나 전부의' 뜻의 지닌 순우리말로.

'모두의'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 구성원 구독자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입니다.  
全州의 온전 全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듯할 溫, 평온할 穩, 생을 穩을 포함  
ON은 거리적·시각적으로 '진보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온

2016.  
vol.5

온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ON

Vol 5, 2016

발행일 2016. 11.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주 소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옥고개로 249

전 화 063.223,5651 팩 스 063.224,0799 누리집 jeonju.museum.go.kr

디자인·제작 디자인노리 063.905.9983 표지사진 분청사기 모란 نگ쿨무늬 편병 粉靑沙器影花牡丹唐草文扁瓶  
조선 15세기 중반~16세기 전반 높이 21.6, 바닥지름 7.0, 입지름 3.0

## C O N T E N T S

### 커버 스토리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P. 4



### 발굴 조사

진안 도토리리 발굴 성과

P. 14

### 박물관 사람들

문화행사팀 소개  
문화행사팀 주무관 인터뷰  
문화행사팀 인터뷰

P. 22



### 지상 강의

분청사기란 무엇인가

P. 30



### 상설전시실 소개

미술실,  
전라북도의 미술을 선보이다

P. 34

## C O N T E N T S

### 이야기 마당

전시품 이야기  
문학작품 속 음식이야기  
영화 속 문화유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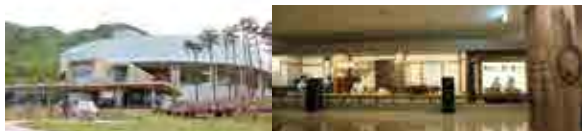
P. 42



### 내가 찾은 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이모저모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학예연구사 인터뷰

P. 52



### 전시 리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P. 60

### 문화 나눔

교육 프로그램 소개  
야간개장 프로그램 소개

P. 62



### 박물관 소식

전북 박물관 전시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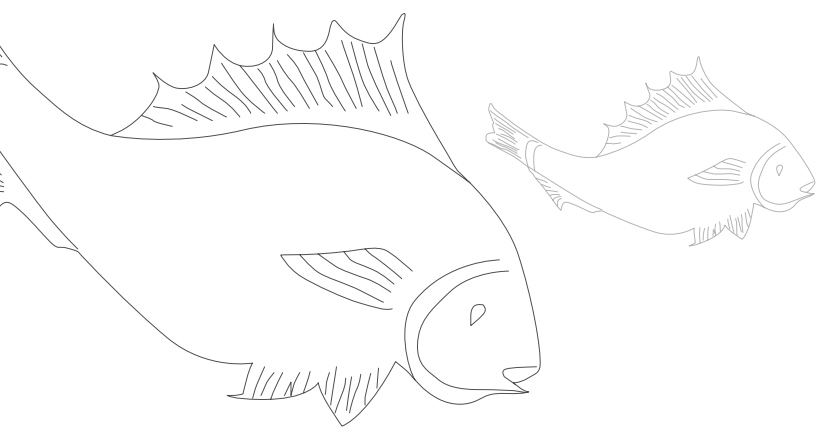
P. 66

## 커버 스토리 :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글 권소현 학예연구사







## 국립전주박물관 테마전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粉靑沙器

국립전주박물관은 2016년 테마전으로 고창高敞 용산리龍山里 가마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소개하는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2016. 7. 29. ~ 10. 23.)를 열었다. 고창 용산리 가마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라북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분청사기 가마터이다. 앞서 확인된 광주 무등산 충효동忠孝洞 가마터와 더불어 15세기 후반 호남 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가마로 꼽히고 있다. 도자기를 굽는 방인 번조실燻造室이 층층이 계단식으로 지어졌고, 가마의 천장부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이 가마터에서 조화彫花와 박지剔地 기법으로 물고기와 모란 무늬를 장식한 병, 편병扁瓶, 큰 사발(대발大鉢), 큰 항아리(대호大壺), 접시 등 특색 있는 분청사기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검은색 유약을 바른 흑유黑釉 자기와 백자白磁가 함께 나와서 조선 전기 도자기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전라북도의 도자 문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안 유천리柳川里에서 만들어진 고려청자이다. 부안은 전라남도 강진과 더불어 고려청자 제작의 중심지였다. 신비한 비색靑色과 상감象嵌 기법을 사용한 명품 상감청자와 고려 백자를 함께 생산하여 고려시대 도자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북 지역의 우수한 고려청자 전통은 조선의 분청사기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 새로운 조선의 도자 문화를 탄생시켰다.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



분청사기 모란넝쿨무늬 편병과 흑유편병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전시는 이렇듯 15세기 후반 조선의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용산리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시는 5개 주제로 이루어졌다. 1부 청자와 백자의 가교 - 분청사기, 2부 용산리 가마와 발굴 이야기, 3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4부 용산리 가마의 다양한 도자기, 5부 전북 지역의 분청사기. 용산리 가마터에서 발굴한 분청사기 외에도 용산리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것들을 함께 소개했다. 이 전시는 또한 지역적 특색이 강한 분청사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청도 계룡산에서 제작된 철화鐵畵 분청사기와 비교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전시를 보는 즐거움을 더하였다.

### 1부 청자와 백자의 가교, 분청사기

고려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만든 조선시대 도자기를 일컫는 용어 ‘분청사기’는 옛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용어는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高裕燮, 1905~1944)이 회청색 바탕흙으로 빚은 그릇 전체에 흰색 화장토(백토)를 발라 분장粉粧했다는 뜻에서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이것을 줄여 ‘분청사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분청사기는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조선 전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백자白磁를 지향하면서 청자와 백자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분청사기는 그릇 표면에 백토를 입히고 어떤 방법으로 무늬를 나타냈는가에 따라 7가지로 나눈다. 상감(象嵌: 그릇 표면에 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그 안에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 넣는 기법), 인화(印花: 도장 따위로 눌러 찍어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 조화(彫花: 무늬를 음각 선으로 나타내는 기법), 박지(剝地: 무늬를 빼고 바탕의 백토를 굽어내는 기법), 철화(鐵畵: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그리는 기법), 귀알(뽕뽕하고 거친 솔인 귀알로 백토를 바르는 기법), 덩빙(백토를 탄 물에 그릇을 거꾸로 덩빙 담갔다가 꺼내어 분장하는 기법)이 그것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힘과 자유분방한 매력을 지닌 분청사기는 1467~1468년경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사옹원司饔院의 분원, 즉 관요(官窯)가 설치되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백자를 직접 제작하여 충당하고 점차 백자를 선호함에 따라 수요량이 줄다가 16세기 중엽에는 거의 사라졌다.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접시 세부





분청사기 귀얄 무늬 대접

## 2부 용산리 가마와 발굴이야기

고창 용산리 가마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연기마을에 위치한다. 연기 마을 안쪽에 위치한 연기제 저수지 일대에서 제방 공사를 하던 도중 가마의 흔적이 드러났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진행한 지표 조사에서 가마 벽체와 분청사기, 백자, 요도구 등이 확인되었다. 2000년에는 시굴 조사가 이루어져 가마 4기와 유물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분청사기 가마터 4기와 분청사기, 흑유와 백자 유물이 확인되었다. 가마터 4기 중 가장 북쪽에 자리하는 4호 가마터는 상당 부분 파손되었으나 나머지 3기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다. 가마터에서는 형태와 무늬가 다양한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흑유 자기와 백자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발굴 조사 결과, 용산리 가마터는 조선 전기 도자 문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2003년 8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되었다.

### 3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용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많은 양의 도자기는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며 흑유 자기와 백자도 포함되었다. 분청사기는 조화, 박지, 인화, 귀얄, 덩병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 이중 특히 조화와 박지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는 물고기[魚], 모란[牡丹], 파초[芭蕉], 연꽃[蓮瓣] 등의 무늬 표현에서 용산리 분청사기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또한 이 가마터에서 나온 분청사기는 기종과 기형이 다양했다. 반상기[飯床器]라 할 수 있는 사발鉢, 완碗, 접시부터 병, 편병, 큰 항아리(대호), 큰 사발(대발), 큰 대야(대반大盤)가 발견되었다. 특히 대형 기종의 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용산리 분청사기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 4부 용산리 가마의 다양한 도자기

용산리 가마터에서는 분청사기 외에도 흑유黑釉 자기와 백자가 출토되었다. 검은색 유약을 바른 흑유 자기는 병, 기름병(유병), 편병이 대부분이고 물이나 술을 담아 따르는 주자注子와 작은 항아리(소호小壺), 술이나 간장을 담는 장군도 확인되었다. 반상기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반면 용산리 가마터에서 나온 백자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사발, 접시, 잔 등의 반상기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용산리 가마터에서는 인화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그릇들의 안쪽에는 ‘內臚(내섬)’, ‘禮賓(예빈)’, ‘禮(예)’, ‘大(대)’, ‘×’ 등의 글자나 기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거나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귀얄 또는 덩병 기법으로 분장한 분청사기의 안쪽에서는 음각으로 새긴 ‘근(근)’, ‘天(천)’ 등의 글자도 확인된다. 박지 기법으로 당초무늬를 장식한 큰 대야 조각에는 ‘金山(금산)’이라고 새겨져 있다. 백자에도 ‘禮賓(예빈)’, ‘內賓(내자)’, ‘祭(제)’, ‘二’, ‘一’, ‘十’ 등의 글씨와 기호가 새겨져 있다.

내섬시內臚寺는 궁궐의 물품을 담당했고, 예빈시禮賓寺는 연회와 종실과 재신에 음식을 공급했고, 내자시內賓寺는 궁중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관청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용산리 가마에서 생산된 분청사기가 왕실이나 관아에 공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섬'이 새겨진 분청사기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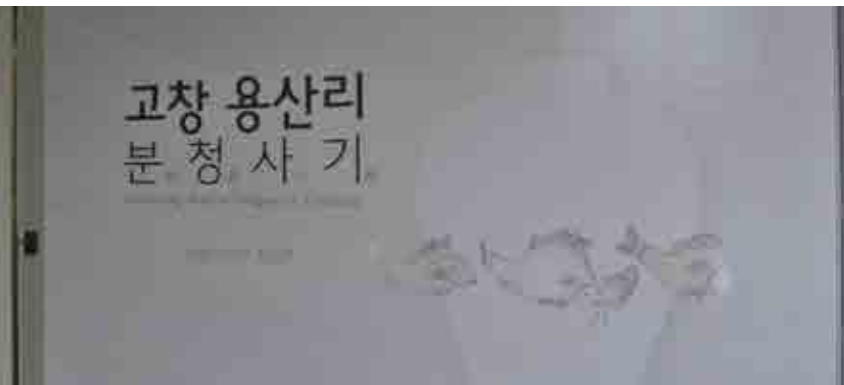


### 5부 전북지역의 분청사기

전북 지역에서 분청사기 가마터는 1980년대에 지표 조사와 발굴이 시작되었다. 최근 조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가 거듭될수록 발견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분청사기 가마터는 완주, 김제, 진안, 부안, 고창, 임실 등지다. 이 전시에서는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가마뿐만 아니라 고려청자의 전통이 이어지는 고창 용계리龍溪里와 상감 분청사기를 생산한 완주 화심리花心里 가마에서 나온 유물을 함께 소개한다.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는 2001-2002년 발굴 조사 이후 용산리 가마터에 나온 유물과 유적을 처음으로 총망라하여 소개하는 전시였다. 이번 테마전을 통해 전북 지역의 도자 문화, 나아가 전북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500여 년 전 모란, 물고기 등의 무늬를 간략하면서도 활달하게 장식한 분청사기를 사용하였을 조선시대 사람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였다. ❶





## 진안 도통리 발굴 성과



도통리 하늘에서 본 가마 전경



2015년 하반기, 진안 도토리 초기 청자 요지 A지역 내에 위치한 1호 가마(진흙 가마)를 발굴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시굴 조사를 하던 도중 중평마을 2호 청자 가마의 일부가 드러났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호 가마에 대한 학술 자료와 유적의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호 가마는 장축 방향이 북동-남서( $N45^{\circ}E$ )로 등고선과 직교하고, 경사도가 16도임을 파악했다. 또한 가마의 길이는 21미터이고 너비는 1.4-1.8미터임을 확인했다. 조사 범위의 한계로 인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지만, 가마의 연소실(燃燒室), 번조실(燔造室), 출입 시설 등의 세부 구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소실 안쪽 벽과 윗부분은 석재로 쌓았고, 나머지는 진흙과 갑발을 혼용해 만들었다. 가마의 축조(築造)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트랜치(Tr) 단면 토층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가마는 구지표층을 U자형으로 파낸 뒤, 벽체를 쌓아올려 만든 반지하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벽을 벽돌로 정연하게 쌓아올린 모습이 확인되어, 벽돌에서 진흙, 갑발(甲鉢)로 가마 짓는 재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번조실 내부에서는 퇴화 해무리굽 청자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이 가마는 폐요 직전에 퇴화 해무리굽 청자를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마와 인접한 퇴적구에서도 벽돌과 각종 선해무리굽 청자가 다량 수습되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진안 도토리 중평마을 2호 청자 가마의





잔존 현황 및 연소실, 번조실, 출입 시설 등 세부 구조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호 가마는 한 가마에서 벽돌 가마가 진흙 가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어 초기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호 가마는 벽돌 가마의 모습과 내부에서 발견한 유물로 보아 10세기 중반에 처음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퇴화 해무리굽이 생산되는 10세기 말~11세기 초반에 폐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경기도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에서 확인된 벽돌 가마, 여주 중암리에서 확인된 벽돌과 진흙으로 만들었던 고려백자 가마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초기 청자 생산 가마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진안 도토리 중평마을 2호 청자 가마는 절반가량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호 가마에 대한 발굴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가마의 전체 형태와 세부 구조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및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sup>4)</sup>



##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현장 모습과 유물





현장 조사 모습

## 발굴 조사 진안 도통리 발굴 성과







발굴 조사 모습



가마 내부 출토 갑발

## 국립전주박물관 문화행사팀 정정숙 주무관





Q. 박물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전주시청에 잠시 근무하던 중 우연찮게 1990년 10월 26일 개관을 앞둔 국립전주박물관에 몸담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물관... 그 당시 허허벌판에서 늦은 퇴근길을 재촉할 때면 버스조차 드물고 지나치기 일쑤여서 쏟아졌던 눈물, 삶의 고비를 맞았을 때 문득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하는 자괴감에 사직서를 급적이며 느꼈던 외로움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에게 박물관은 직장 동료이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게 해준 인연의 끈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추억의 산책을 나서 박물관과 저와의 인연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Q.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 및 문화행사 관련 사업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다소 못 미더운 구석이 있지만 팀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역사를 품은 복합문화공간!이다’라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문화로 더 행복한 국민의 삶을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 아래, 지역민과 소통하고 박물관이 삶의 터가 되고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큐레이터와의 대화, 영화), 토요일 야간개장 문화행사(공연, 영화), 5월 5일 어린이 축제,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1관 1단 사업 등……

우리 박물관이 문화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관람객 중심의 질 높은 콘텐츠 개발과 아울러 규모는 작지만 최신시설이 갖추어진 공연장을 꿈꿔 봅니다.





Q. 박물관에서 전문 분야를 갖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몸담은 곳에서 더 나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  
는 그 순간이 전문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  
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쌓은 경험으로 그 분야의  
핵심 인재가 되어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ㄹ



## 국립전주박물관 문화행사팀

Q.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 승 희** 문화행사와 부속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에서는 관장님을 보좌하는데, 주로 일정 관리 및 손님 응접 업무를 합니다. 문화행사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문자 안내 및 티켓 수령을 돕고, 행사 당일 운영 관리와 진행요원 역할을 합니다. 야간개장 행사가 마무리되면, 팀과 함께 공연 및 영화 기획에도 참여해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문화행사를 선보이고자 노력합니다.

**김 술 기** 중국어 통·번역 및 박물관 문화행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우호협력 체결을 맺은 중국 쑤저우 박물관 교류와 관련된 통·번역을 수행합니다. 또한 매 주말 영화 상영 및 야간개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 프로그램은 음악회, 놀이극, 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 공연을 포함합니다.

**하 승 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째 주 토요일에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2째 주와 4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저는 주로 영화 상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에 상영 일정과 줄거리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영화를 선정해서 기계실에 영화 dvd를 전달합니다. 그 외에도 공연 전 준비 사항을 체크하여 공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관람객을 안내합니다.





### Q.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서승희** 홍보가 잘 되어 객석이 관람객들로 꽉 차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박물관 공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은 공연이 1분 만에 매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공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앙코르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뿌듯합니다. 좋은 공연을 보여 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 부탁한다는 인사를 받을 때만큼 기분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김של기**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데, 가족 단위로 문화행사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 박물관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생소한 우리 전통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아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승원** 올해 7월에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쇼 코미디 아카펠라 ‘쇼콜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관람객이 찾아 주셨습니다. 관객의 반응도 정말 좋았고 관객들이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시면서 많은 관객들이 공연이 정말 즐거웠고 좋은 공연을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Q. 박물관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 승 희** 무엇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은 전석 예약제이긴 하나 예약하지 못하였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약을 취소한 분에 따라서 대기자 표를 만들어 순서대로 현장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문화행사를 즐기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호응도 중요하겠습니다. 관객의 호응에 공연자는 신나서 훨씬 질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공연의 주체는 관람객들이니까요!

**김 슬 기**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행사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손쉽게 행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행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서 열리는 1년간의 행사를 소개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박물관 본관 로비에 두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을 구경하고 책자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승 원** 박물관에서 정말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박물관 누리집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연과 영화 상영 정보도 얻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문화행사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소 은 빈** 앞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는 데 그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배운 전공과 연관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과 인성을 키우는 일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워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①

## 분청사기란 무엇인가

옛 문헌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반면, 분청사기는 자기磁器라고만 기술되어 있을 뿐 특정한 용어가 없지만 청자와 백자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20세기 전반에 미학 및 미술사학자였던 고유섭高裕燮이 일본인들이 부르는 미시마테[三島手]라는 의미 불명의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분청사기의 특징을 들어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지칭한 데서 유래되었다. 분장회청사기를 줄인 ‘분청사기’는 현재 학술용어가 되어 전 세계가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도 1) 분청사기 조화 선문 편병, 조선 15세기, 일본 개인

분청사기의 특징은 '백토분장기법白土粉粧技法'에 있다. 표면을 백토로 씌운 후 문양을 선으로 조각한 조화기법彫花技法의 분청사기(도 1), 문양 배경을 이룬 부분의 백토를 긁어 냄으로써 표면을 장식한 박지기법剥地技法의 분청사기가 있다(도 2). 또 백토를 귀알로 발라 표면을 백자화한 귀알분청사기(도 3), 백토 물에 덩벙 담가 그릇 전체를 백토 분장하는 소위 덩벙분청사기(도 4)를 제작하기도 했다.



(도 1) 분청사기 조화 선문 편병, 조선 15세기, 일본 개인

## 지상 강의 ■ 분청사기란 무엇인가



(도 2) 분청사기 박지 연어문 편병  
조선 15세기, 국보 제179호, 호림박물관



(도 3) 분청사기 귀알문 편병  
조선 15세기, 삼성미술관 Leeum

이러한 백토분장의 다양한 모습이 '분장회청사기'라는 용어에 가장 잘 부합한다. 그런데 분청사기에는 상감기법의 분청사기와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있다. 인화기법은 조각기법이나 박지기법과는 달리 무늬를 도장으로 찍고 여기에 백토를 감입(嵌입)하는 방법이다. 백토를 도장 부위에 넣기 때문에 도장을 촘촘히 찍은 것은 표면 전체가 거의 백색이다(도 5). 마치 점을 찍은 현대의 추상화의 대가인 1960년대 김환기의 추상작품을 연상시킨다. 인화기법은 백토를 감입하므로 넓은 의미로는 상감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청사기의 상감기법과 구별하여 인화기법의 분청사기 즉 인화분청사기라고 지칭한다.

상감기법은 12세기 고려청자에서부터 유래하며 15세기 분청사기에까지 이어진다(도 6). 따라서 상감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전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외에 아무런 문양을 넣지 않은 무문분청사기(일명 회청사기)가 있는데 주로 일상기명인 사발과 접시이다.





(도 4) 분청사기 덩병분장 항아리, 조선 15세기~16세기 전반, 호림박물관

이처럼 분청사기의 특징은 백토분장을 어떻게 응용했는가에 따라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덩병 등의 다양한 문양이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와 다른 점이다.<sup>④</sup>



(도 5) 분청사기 인화 집단연권문 병  
조선 1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 6) 분청사기 상감 어룡문 매병  
조선 15세기, 삼성미술관 Leeum

※ 본 내용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테마전 연계 특강 "분청사기란 무엇인가?" 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교육→교육자료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룬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소개 : 미술실

글 권소현 학예연구사

미술실  
Fine Arts Gallery

Fine Arts Gallery

미술실,  
전라북도의 미술을 선보이다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2층에 자리한 미술실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출토된 불교미술품과 도자기, 목칠기, 한지공예품 등 전북 사람들이 일군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미술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시각과 조형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크게 건축,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불교조각과 흙, 금속, 나무, 종이를 활용한 공예품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심성<sup>心性</sup>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제작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책에 쓰여 있지 않은 역사를 알려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전북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 특화한 미술실은 크게 〈부처를 위한 공덕〉, 〈하늘과 바다를 품은 그릇〉, 〈나무와 종이의 향기〉의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각각 불교미술품과 도자공예품, 목칠공예와 한지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 1부 부처를 위한 공덕

불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싯다르타 즉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종교이다. 불교를 널리 알리고 석가모니를 비롯한 불교의 여러 신을 찬미하기 위해 제작된 회화, 조각, 건축, 공예품을 통틀어 불교미술이라고 일컫는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된 만큼 불교미술 역시 인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된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기에 따라 새로운 불교미술품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교미술품은 곧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예배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만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수용된 이래 전북 지역에서는 찬란한 불교미술이 꽃을 피웠다. 김제 대목리에서 출토된 판불板佛의 부처상은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으로 백제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부처상과 사리갖춤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불교문화와 정교한 공예수준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 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출토된 부처상을 비롯한 불교 관련 유물들은 고대 이 지역 불교미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주 낙수정 일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범종梵鐘은 균형 있는 몸체와 정교한 장식으로 불교공예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익산 미륵사터, 완주 대성리 화엄사터, 김제 청도리, 부안 남포리 등에서 고려시대 불교 의식구를 비롯한 각종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어 전북 지역의 불교미술이 성행했음을 알려준다.



## 2부 하늘과 바다를 품은 그릇

2부는 하늘과 바다를 품은 그릇인 전라북도 청자靑磁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도자기는 흙, 불,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결실을 맺는 예술이다. 그만큼 기술과 예술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좀처럼 만들 수 없었다. 1,0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고려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제작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통일신라 경질(靑質) 토기의 기반 위에 중국 저장성(浙江省) 월주요(越州窯)에서 유입된 청자 제작 기술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과 200여 년 만에 부안과 강진에서는 중국인들이 놀랄 정도로 빠른 경지에 이른 청자가 생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절정에 달한 청자 대신 분청사기와 백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고려청자는 세련된 귀족문화와 고도의 제작 기술이 함께 빛어낸 최상의 공예품이었다. 고려 초에 시작된 전국의 청자 문화는 진안 도토리 유적에서 그 초기 청자의 제작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청자 제작은 고창 용계리(龍溪里)와 부안 진서리(鎭西里)를 거치며 부안 유천리(柳川里)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부안, 전남 강진과 더불어 고려청자 제작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비색과 정교한 상감 기법이 돋보이는 명품 청자를 생산하였다. 또한 부안은 고려백자의

1 김제 대목리 출토 판불

2 청자 구름학무늬 접시



3

제작지로도 각광을 받았다. 부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바닷길을 통해 고려시대 수도인 개경(開京)까지 운송되었고 왕실과 귀족, 사찰에 공급되었다. 부안 청자를 실은 배가 군산 앞바다 비안도와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침몰한 채 발견되어, 당시 도자의 유통 상황을 말해 준다.

한편, 고창 용산리에서는 15~16세기 초에 만들어진 분청사기, 백자, 흑유 자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고려청자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전북 지역에서 도자 제작이 활발히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 3부 나무와 종이의 향기

주위에 흔한 나무나 강하고 질긴 한지를 이용하여 가구, 문방구,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 등을 만드는 목칠공예와 한지공예는 백성들과 가장 친숙했던 공예품이었다.

우리나라의 목칠공예품은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높은 품격을 지녔다. 한지공예품은 비록 조선 후기 이후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만들기 쉽고 변형이 자유로웠기 때문인지 개성 넘치는 것들이 많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나뭇결이 빼어나며 수목의 식생도 풍부하여, 장롱 같은 큰 가구에서 빗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목칠공예품이 제작되었다. 목가구는 간결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는 반면, 나전칠기(螺鈿漆器)나 화각공예품(華角工藝品)은 장식

3 부안 유전리 출토 청자 붓꽂이





3부 나무와 종이와 향기

강조되어 화려한 면모를 보인다. 그중에서 나전칠공예는 옷칠을 한 용기 위에 자개를 박아 넣어 장식하는 칠공예의 한 분야이다. 단단한 조개껍질을 오려내고 반복해서 옷칠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과정을 거친다. 검은색, 붉은색 바탕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나전칠기가 융성하게 발전한 시기는 고려시대이지만, 조선 중기 이후 점차 조선시대만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와 달리 바탕에 많은 여백을 두고 연꽃넙쿨무늬, 모란넙쿨무늬 등의 무늬를 크고 대담하게 표현하거나 매화와 대나무, 꽃과 새 등의 무늬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조패법(彫貝法)이나 곱음질 기법을 이용하여 십장생, 산수, 꽃과 새 등의 무늬를 회화적으로 변형시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나전칠기는 연상, 서류함, 필통 등과 같은 남성용품과 장, 농, 함, 상자, 빗집 등의 여성용품이 만들어졌고 주로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사용하였다.



한지공예는 기법에 따라 종이나 나무로 골격을 짜고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드는 지장공예(紙裝工藝), 종이 노끈을 엮어 만드는 지승공예(紙繩工藝), 종이를 이겨 두겹게 여러 겹 덧발라 만드는 지호공예(紙糊工藝), 생화 대신 사용할 꽃을 만드는 지화공예(紙花工藝)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장 공예품으로는 함과 상자류, 지승 공예품으로는 바구니와 미투리, 자리, 지호 공예품으로는 종이함 등의 유물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는 약하다고 생각되지만, 한지를 여러 겹으로 배접하면 화살도 뚫기 어려운 질기고 내구성이 강하며 견고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은 재료를 구입하기 쉬우며 제작 기법이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지공예는 선비들이나 여인들의 기호물인 고비(편지꽃이), 연상(벼룻집), 부채, 붓통, 갓집, 지통(종이통), 색지 상자, 반진고리, 패물 상자, 예단함, 색실함, 색실첩 등을

4



만드는 데 주로 활용되었다. 이에 못지않게 요강이나 함지(함지박), 바구니, 신발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데도 흔히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지공예품은 종이라는 재료의 특성과 근대 이후 수요 급감에 따른 단절로 인하여 현재 오래된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으로 미루어 볼 때 한지 공예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조선 시대에 가장 성행했다. 조선 시대 중엽에서 구한말까지 수준 높은 종이 공예품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무와 종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에서는 그 멋이 더해지고 있다.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채는 무더운 여름 나기의 필수품이었다. 새의 깃털로 만든 것을 제외하면, 부채는 대부분 나무로 만든 부챗살 위에 종이를 발라 붙였다. 그 위에 다양한 무늬를 오려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sup>4)</sup>

4 편지꽃이

5 화각부채

## 태양의 상징, 청동 거울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에는 무기武器와 공구工具, 의기儀器, 장신구 등이 있다.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나 동물 모양 청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중원中原 및 북방 지역과 차이가 있다.

부여 송국리 유적 등에서 기원전 9~7세기부터 요령식 동검遼寧式銅劍과 같은 이른 시기의 청동기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는 기원전 4~3세기경 한국식 동검 문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전주 여의동 유적과 익산 다송리 유적에서 무기인 한국식 동검과 공구인 도끼, 끌, 그리고 톱니 모양의 세모꼴이 연속되는 삼각거치문三角鋸齒文을 새긴 거친무늬 거울粗紋鏡과 두껍모양(원개형圓蓋形) 청동기 등과 같은 의기가 발견되었다.

기원전 3~2세기가 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유적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때에는 한국식 동검韓國式銅劍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변화·발전한 청동기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燕나라의 무기인 꺾창銅戈에서 변형된 한국식 꺾창, 거친무늬 거울에서 변화·발전한 잔무늬 거울[精文鏡], 팔주령八珠鈴이나 장대투겁 방울[竿頭鈴] 등과 같은 청동 방울이다.

이중에서 잔무늬 거울은 한국식 동검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이다. 둥근 거울 뒷면의 중앙에 2~3개의 고리가 달려 있고, 나머지 공간에 집선문集線文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돌로 거꾸집을 만들었던 거친무늬 거울과 달리, 잔무늬 거울은 무늬를 정교하게 새기기 위해





진주 여의동 출토 유물  
(거친무늬 거울, 청동 도끼, 청동 괭) | 지름 15.3cm(최대)

## 이야기 마당 : 전시품 이야기



전주 원장동 유적 1호 토광묘 출토 전무니 거울  
지름 18.5cm

고운 점토로 거꾸집[砂型]을 만들었다. 원과 선으로 원형의 공간을 나누고 내부에 세밀한 무늬를 새긴 거꾸집 안에 녹인 청동을 부어 거울 형태를 만들었다. 청동이 굳고 나면 거꾸집을 깨뜨리고 무늬가 없는 거울면[鏡面]을 매끈하게 갈아냈다.





전북 지역 출토 잔무늬 거울  
완주 갈동, 신동, 덕동 유적 | 지름 18.1cm(최대)

잔무늬 거울의 무늬면[背面]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 원형, 여러 선으로 채워진 집선문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무늬를 새겼다. 이 무늬를 통해 제작 시기나 지역적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잔무늬 거울은 크기가 각기 다른 동심원을 사용하여 크게 2~3등분하였다. 그러나 전주 원장동 유적 1호 움무덤에서 출토된 대형 잔무늬 거울은 무늬 면을 3등분하지 않고 전체를 한 가지 문양으로만 새겼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청동 거울에서는 무늬면에 달린 2~3개의 고리에 사용해서 닳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고리의 구멍에 끈을 넣어 매달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햇무리의 모습을 무늬로 새기고 하늘의 빛을 반사시키는 잔무늬 거울은 신을 부르는 도구인 청동 방울[銅鈴], 정치적 권위를 보여주는 한국식 동검과 함께 주로 무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청동기와 함께 묻힌 사람은 신神의 뜻을 전달하고 무력武力까지 갖춘 것으로 보여 당시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무덤 안에 청동 거울을 일부러 깨뜨려 넣기도 하여 당시 사람들의 매장 의례埋葬儀禮를 살펴볼 수도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0여 점의 잔무늬 거울이 발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것으로, 청동 방울이 주로 확인되는 서남부 지역과 달리 잔무늬 거울이 중심을 이루는 전북 지역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sup>4)</sup>

## 마들렌

그런 날이 있다. 우연히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 착각에 빠지는 날 말이다. 음악을 듣고 당시 유행하던 어느 가수의 어떤 노래라고만 단 순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노래가 상기시킨 기억은 그 노래를 듣던 당시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함께 만나 추억으로 이미지화된다. 그 음악을 들던 계절, 그 날의 날씨, 어디에서 누군가와 함께 들었는 지..... 노래가 주는 그 날의 감성과 풍경, 분위기를 비롯해 피부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되살아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날들의 감 수성을 되찾아 준다. 음악을 들었던 주체인 '나'의 기억을 상기시키 면서 그 순간만큼 우리는 오래된 노래 속에 나오는 오래된 기억 속 에서 현존한다.

우리가 사물을 기억할 때, 그 사물을 본질 자체로만 기억하는 경 우는 드물다. 우리의 기억은 그 사물을 사용하던 자신을 투영하여 그 사물을 정의하고 추억한다. 이렇듯 사물이나 대상을 통해 우연히 또 는 불현 듯 찾아온 기억은 과거의 체험을 이끌어 낸다. 심리학에서 는 이를 '프루스트 현상(Proust phenomenon)'이라고 부른다. 냄새를 통해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는 현상으로,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과거 를 상기시킴을 뜻한다. 이 현상은 한 문학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 다. 그 문학가는 바로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이며, 그의 대작으로 잘 알려진 장편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1913-27)에서 유래되었다.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총 4천 쪽에 달하는 분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품이 어렵기로도 유명하여 쉽게 읽혀지는 소설 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문학에서는 20세기 작가들에게 폭넓은 영향 을 미친 중요한 작품으로, 항상 읽어야 할 책 목록에서 사라지지 않 는 대작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난해하지만 요약하자면, 한 인간의 의식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부르주아와 귀 족 계급의 요동치는 운명을 묘사하면서 기억력의 쇠퇴로 인하여 오 해를 불러온 주인공 화자가 무의식적인 기억의 환기를 통하여 정체 성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 찾기'의 중심에 심리 학 용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공헌을 한 음식이 등장한다. 그것 은 '마들렌(Madeleine)'이다.



지금부터는 마들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들렌은 카스텔라의 일종으로 조개 모양을 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티 쿠키(tea cookie)이다. 그 유래로는 18세기 프랑스에 위치한 마리 마들렌(Sainte Marie-Madeleine) 수녀원에서 처음 구워졌다는 가설과 18세기 로렌 공작의 저택에서 일하던 어린 하녀가 처음 만들었다는 가설이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인들은 마들렌을 차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티 쿠키로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마들렌을 프루스트의 소설에서는 ‘통통하게 생긴 관능적이고 풍성한 주름을 지닌’ 과자라고 묘사한다. 여기에서 마들렌은 단순히 티 쿠키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억 찾기’의 중심이 되는 도구로 등장한다. 주인공의 잃어버린 기억을 환기시키고 정체성을 찾아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마들렌이 전하는 고유의 맛과 향이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기억을 깨워 유년의 시절로 이끈다.

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생자크라는 조가비 모양의, 가느다란 홈이 팬 틀에 넣어 만든 ‘프리트 마들렌’이라고 짧고 통통한 과자를 사 오게 하셨다. 침울했던 하루와 서글픈 내일에 대한 전망으로 마음이 울적해진 나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조각이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 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본문 中

성인 주인공 화자는 어느 날 겨울, 마들렌 조각과 차 한 잔을 먹는 순간 그 맛이 일깨워주는 감각을 통해서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다. 콩브레의 작은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던 어린 시절, 일요일 아침마다 고모할머니의 딸인 레오니 아주머니가

홍차나 보리수차에 마들렌을 적셔주곤 하였던 그 느낌을 다시 기억해 낸다. 그것이 마들렌의 맛이다. 오래된 기억 속에 존재한 맛.

이는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하고 떠오르는 감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마들렌 조각을 먹는 순간 의식은 시공간의 영역을 넘어 현재에서 과거로,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교차되고, 그 순간 주인공 화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유년의 시절로 돌아가게끔 한다.

이렇듯 소설에서 마들렌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의 섭취가 아닌 주인공 화자의 기억 세포를 일깨우는 장치이다. 시각과 후각, 미각을 통한 감각들로 체화된 기억을 일깨우고 소설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서게 한다. 주인공 화자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 여행'은 이 한 조각의 마들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마들렌 한 조각이 일깨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억'. 과거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인공 화자.

가끔 누군가는 '추억으로 산다'라고 말하곤 한다. 추억으로 산다는 말은 아마도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지금의 나로 거듭나는 과정을 생각하고 돌아본다는 뜻일 테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으면 싶다. 하루가 다르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필자는 홍차와 마들렌 한 조각을 추천하겠다. 마들렌을 음미하면서 그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찾아서 불현 듯 떠나는 '시간 여행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달콤한 기억을 위해. ④



## 영화 「관상」과 고창읍성 맹종죽림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년 10월)’이란 역사적 사실에 ‘관상’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결합하여 긴장감 넘치는 극적 시나리오를 구성한 영화가 있다. 송강호, 이정재 등 화려한 스타들을 동원하여 한재림 감독이 제작한 영화 〈관상〉은 관객 934만 명을 모으며 〈7번방의 선물〉, 〈설국열차〉와 함께 2013년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제50회 대중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영화 〈관상〉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된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천재 관상이 김내경(송강호 역)과 처남 팽헌(조정석 역)의 코믹한 연기로 즐거움을 준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는 백성의 나라를 꿈꾸며 어린 단종의 편에 섰던 호랑이상 김종서(백윤식 역)와 강력한 왕의 나라를 그리며 군주가 되기를 꿈꾸는 이리상 수양대군(이정재 역)의 갈등이 전개되어 영화의 재미는 더욱 증폭된다.

수양대군의 옆에는 책사 한명희가 있고, 김종서의 옆에는 관상을 보는 김내경이 있다. 수양대군을 통해 한명희는 권력을 얻게 되고,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은 제왕(세조)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러나 피의 정치로 군주가 된 수양은 즉위한 지 14년 만에 몸을 병과 죄책감에 속죄하며 불교에 귀의하고, 계유정난에





관계되어 귀향을 가거나 종이 된 사람들 모두 풀어 준 후 돌연 죽는다. 또한 세조의 아들인 예종도 재위 13개월 만에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된다. 영화 <관상>은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간절함에 비례해 실체가 없으며, 천신만고 끝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권력은 한순간에 빠져 나가며 허무함과 또 다른 권력 욕망을 남길 뿐이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 초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와 진실을 적절히 결합하여 역사의 명암을 수준 높게 보여 준 영화 <관상>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울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어서 영화가 모두 끝난 후에도 잔잔히 밀려오는 감동의 여운은 오래 남는다.

영화 <관상>에는 조선시대의 고품스런 풍경이 여러 곳 나온다. 경기도 양평 대부산(설매제)과 전라북도 고창읍성 소나무 숲, 대숲(맹종죽림)에서 촬영한 것이다. 방장산을 둘러싸고 자리한 고창읍성(사적 제145호)은 백제시대 '모양부리'라고 하여, 이곳에 모양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고창읍성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1453년(단종 원년)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남도 장성의 입암산성과 함께 왜구로부터 호남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써 그 역할이 대단하였다.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쌓은 성벽은 둘레 1,684미터 높이 4~6미터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복문, 공북루, 서문, 동양루와 수구 등이 복원되어 있다. 읍성 내부에는 동헌을 비롯하여 객사와 풍화루, 내아, 옥사 등 20여 채의 관아 건물을 복원하여 조선시대 읍성과 지방 관아의 아전들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머리에 돌을 이고 성벽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에 간다고 하는 성 밟기 놀이가 내려오고 있어 매년 그 행사가 이어진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하여 관상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기에 오늘날 우리는 관상가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밀며 운명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영화 <관상>의 막바지에 주인공 김내경이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에게 던지시 건넌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압축하는 듯하다.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소.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것이거늘. 당신들은 파도를 타고 잠시 율랐을 뿐이요. 언젠가는 내려갈 일도 있지 않겠소.” 고창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창읍성 성루에 올라 이 말을 되새기노라면, 매일 마주하는 많은 관상들이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스친다. ❶

내가 찾은 박물관 : 박물관 이모저모  
글 나상형 학예연구사



##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이모저모

## 술, 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전국 최대 수량을 자랑하는 술 관련 유물 5만 5천여 점을 토대로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술술 펼쳐놓은 재미있는 박물관이다. 또 술을 빚는 전문강좌와 발효체험, 매월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우리 술 시음 등 무엇보다 마시고 즐겼던 술을 문화로 담아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에 위치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2015년 10월에 개관한 공립박물관으로, 61,594㎡의 부지에 물방울처럼 퍼져나가는 술을 형상화 한 반원형의 전시관을 비롯하여 시음장, 야외시설 등으로 조성되었다.

술에 대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8개의 상설전시와 분기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기획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고구려 건국신화의 바탕이 되는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을 각색하여 우리 역사 속 술의 기원을 알아보는 3D 주제 영상관, 술 빚는 재료와 함께 술이 발효되고 있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제조관, 집집마다 맛과 향을 달리 하던 가양주의 황금기라 불리는 조선시대와 주세령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우리 술이 획일화되었던 일제강점기를 구분지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술의 역사와 문화관, 광복 이후 주류 정책 변화를 정리하고 우리 술의 미래 비전을 함께 생각해보는 전통주 르네상스관, 나라 밖 곳곳에서 수집한 다채로운 술들을 만날 수 있는 세계의 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설전시실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수장형유물전시관과 주점재현관, 향음문화체험관이다.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는 수장형유물전시관은 명칭 그대로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박물관 수장고를 콘셉트로 조성한 곳이다. 술 빚는 도구들을 쓰이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술의 종류와 주제를 달리하여 진열한 이곳은 사방을 둘러 켜켜이 쌓여진 유물이 주는 몰입감과 수장고에





1



대한 호기심 넘치는 연출로 보는 이들을 술의 세계로 이끈다. 주점재현관은 1960년대 전주 남문시장에 있었던 대폿집과 완주 용진의 양조장, 1990년대 전주 중앙동의 호프집을 재현한 곳으로, 부스뿐 만 아니라 복도와 외벽까지 그때 그 시절에 걸맞는 상가와 골목으로 연출한 향수 어린 곳이다.

특히 중장년층 관람객들에게는 “포토존으로 꾸며진 주점재현관 부스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당시 유행하던 가요를 듣고 있노라면 잊고 있었던 추억의 한 토막을 선물 받는 것 같다”며 만족도가 높다.

향음문화체험관은 특수 안경을 쓰고 음주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내 몸에 맞는 술, 음주문화서약 등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바른 음주문화를 배워볼 수 있다.

특히 향음주례체험은 정자에 올라 도포와 갓 등 의관을 정제하고,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영상장비를 통해 조선시대 향촌에서 이루어지던 향음주례를 따라해 볼 수 있어서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호응이 높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의 전문성이 깃든 전통주, 와인, 맥주, 막걸리 창업반 등의 전문강좌와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이용한 발효음식 또한 특별한 체험거리이다.

먼저 전문강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5~7주 동안 양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가며 술을 빚는데, 수강생 저마다 직접 나만의 술을 빚어보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열의로 현재 7기에 이르기까지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또 어린이들은 발효음식인 술의 장점을 살려서 술지게미를 활용한 쿠키,

1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수장형 전시실

2 박물관 외부 향아리 전시 전경

3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주점재현관

4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발효숙성실

5 전통주 강의-발술 만들기 체험

6 어린이 누룩피자 만들기 체험







2



3



4

누룩피자, 발효단팥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술 박물관만의 특징이 담긴 체험거리는 충분한 발효를 거친 좋은 재료를 직접 만들어 먹고, 가져갈 수도 있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각산 자락에 위치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의 또 다른 매력은 자연이 주는 힐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박물관 앞에 펼쳐진 너른 잔디 정원 곳곳에는 신라인들의 흥겨운 음주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령구를 비롯해 놀이터, 수풀미로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후원에는 코스모스길을 따라 구이저수지 둘레길과도 연결되어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이라는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양조장을 중심으로 한층 더 전문화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고, 주막거리를 비롯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술 문화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으로 부터 피어나가는 그윽한 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sup>4)</sup>



5



6

53

여가 찾는 박물관

##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나상형 학예연구사

Q.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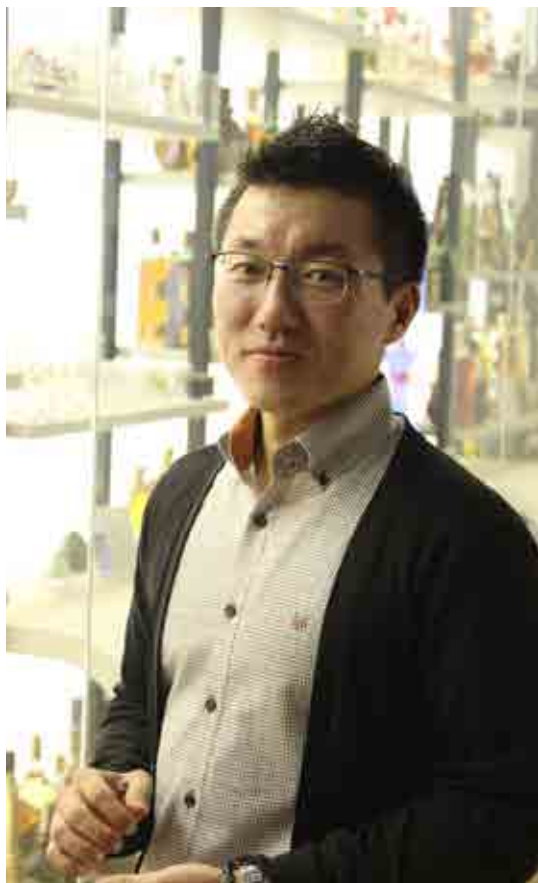
종가였던 외갓댁은 명절이나 평상시 할 것 없이 늘 손님맛으로 부산했습니다. 다과상이나 끼니에 늘 술이 빠지지 않고 올라갔고, 이불을 둘둘 감아 둔 술항아리를 보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술에 관대하였고, 그래서인지 술과는 꽤 친숙한 편입니다.

술은 비단 제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제사나 결혼, 여러 의식을 비롯하여 농경문화 속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노동이나 잔치에서 여럿이 어울려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술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소울 푸드[Soul Food]와 같은 술을, '음주'보다는 '음주를 즐겼던 문화'를 부각시켜 재미와 더불어 바르게 알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전시를 꾸미고 싶어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조성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과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박물관의 유물들은 대부분 술과 관련된 근현대 생활사적 자료들이 대종을 이룹니다. 언뜻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정도로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량으로 술을 빚던 양조장에서 술덧을 짜내기 위해 사용하였던 착즙기, 보랏고개가 있던 1960년대, 어려운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술을 빚기 위해 소비되던 양곡을 줄이기 위해 사과와 포도를 주재료로 출시되었던 국산와인들, 조선과 동양, 진로와 삼학 등 술병에 붙어있는 초창기 라벨 등은 저희 술 박물관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문화콘텐츠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유물은 주방문酒方文입니다.

우리 술 문화에서 집집마다 비법을 달리해 술을 빚어 마셨던 조선시대를 '가양주家釀酒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집안의 아녀자들 사이, 즉 시어머니가 시집 온 며느리에게 건네주던 집안의 가양주 비법을 적은 문서를 주방문이라고 부르는데, 풀어 쓰자면 '술 빚는 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발음소리대로 적고, 이따금 한문에 토를 단 듯 표기들이 제 각각이지만, 조상을 모시는 제사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담그는 술인 만큼 정갈한 마음이 느껴지는 유물입니다.



Q. 그간 박물관 업무 가운데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학예사들 가운데 직접 박물관의 시작을 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업무를 맡은 4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의 기공식부터 개관식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해 왔다는 것입니다.

첫 일 년 동안은 “맨 땅에 헤딩”이란 말처럼, 빈 도면을 놓고 어떤 전시관을 만들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세부기획과 유물선정에 몰두하였고, 또 내부설계도 기획에 맞춰 한 땀 한 땀 채워나갔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더 나은 전시를 보여주기 위한 변화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첫 삽을 뜨기부터 개관까지 복잡다단함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축적은 더 값진 결과인 까닭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고생한 박물관 식구들과의 인연도 더 특별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아직 신생 박물관인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의 내실을 더하고 활발한 홍보와 함께 외연을 넓혀 우리 박물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또 다른 기회가 닿았을 때 그간에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더 멋진 박물관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학예연구사의 길을 택한 저의 바람입니다. 41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개막한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특별전에는 신안해저선에서 건져 올린 2만 4천여 점의 문화재 중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지금까지 신안해저선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을 선보이는 전시가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품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것들만을 골라서 공개한 것이 전부였다. 이번 특별전에는 현 시점에서 전시 가능한 모든 문화재를 공개한다는 점이 기존 전시와 크게 차별이 있다.

이번 특별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인 ‘신안해저선의 문화기 호 읽기’에서는 복고풍 그릇들과 차硯, 향, 꽃꽂이 등과 관련된 완상품들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하여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중국적 취향과 그에 따른 일본 상류층이 선호했던 문화생활을 살펴보고, 나아가 고려에 있었던 비슷한 문화적 취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제2부 ‘14세기 최대의 무역 선’에서는 신안해저선이 닻을 올렸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Ningbo 寧波 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역 활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신안해저선의 선원이나 동승했던 사람들의 선상 생활도 살펴보았다. 제3부 ‘보물창고가 열리다’에서는 신안해저선에 실었던 화물들을 도자기, 동전, 자단목, 금속품 및 향신료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일부는 당시의 발굴 상황 등을 재현하여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알다시피 신안해저선에 대한 발굴은 1975년 8월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6점에서 비롯되었다. 어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동생에게 도자기들을 보여 주었고, 동생은 이듬해인 1976년 이종 제일 먼저 '청자 꽃병' 한 점을 신안군청에 신고하였다. 그 도자기는 놀랍게도 중국의 원나라(1271-1368) 때에 존재했던 용천요龍泉窯라는 가마에서 만든 청자였다. 이어서 나머지 5점도 신고가 되었다. 650여 년이 지났지만 잘 보존된 원대 도자기의 존재가 알려지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신안 앞바다에서는 몰래 도자기를 건져 올리는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관리국(지금의 문화재청)은 1976년 10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한다. 그 결과, 신안해저선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1984년까지 9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배와 함께 실려 있던 2만 4천여 점이라는 엄청난 양의 문화재들을 건져 올렸다.

이것들이 바로 이번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신안해저선의

발굴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효시가 되었으며, 인양된 문화재들은 14세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상교역의 양상과 문화 교류상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타임캡슐처럼 650여 년 만에 나타난 신안해저선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특별전이 신안해저선에 대한 연구에 커다란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전시는 이어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순회전(2016. 10. 25. - 2017. 1. 30.)으로 진행된다.<sup>4)</sup>



1 용모양 붓걸이 靑銅 交龍裝飾 筆架 길이 18.7cm 원전

2 비녀 琉璃 簪 길이 16.7cm 원전

3 팔괘무늬 항로 靑磁 八卦形 奩形 香爐 높이 14cm 입지름 21cm 원전

4 흑유완 黑釉盥 높이 7.1cm 원전 14세기

5 어룡장식 화병 靑磁魚龍飾花瓶 높이 15.8cm 원전 14세기

6 박산항로 靑銅 博山香爐 높이 18.4cm 입지름 8.4cm 원전



## 국립전주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갤러리 토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네 시, 국립전주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는 속닥속닥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매월 새로운 주제로 실물 자료(먹, 붓, 전통 안료, 도자기 파편, 복제 유물 등)를 탐색하며 유물을 관찰하는 동안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꽃피웁니다.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실에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실래요?



### 오늘은 어린이 갤러리토크 첫날입니다.

아이들은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옛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했던 ‘먹’에 대해 탐구했어요. 큼큼 냄새도 맡아 보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추측해 보았지요. 연하고 은은하게 표현된 먹색, 진하고 강하게 표현된 먹색. 전시실 속 여러 작품을 비교 관찰하며 농묵과 담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관찰한 것을 토대로, 물을 거의 섞지 않은 농묵부터 물을 점점 많이 섞으며 다양한 검정색을 만들어 화선지에 찍—그어 보았어요. 농묵과 담묵이라는 낯선 용어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연필, 볼펜, 사인펜 등 다양한 필기구를 사용하는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먹이 생활 곳곳에서 중요하게 쓰였다는 것도 스스로 알아갔어요.

### 어린이 갤러리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실에는 왕의 초상화인 어진이 3점이나 있어요. 파란색 옷을 입은 태조의 어진, 빨간색 옷을 입은 영조의 어진, 노란색(황금색) 옷을 입은 고종의 어진입니다. 아이들은 왕의 초상화에 가까이 다가가 눈, 코, 뺨 등을 꼼꼼히 감상하고 수염, 눈썹, 주름, 옷의 무늬, 점, 손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부분들을 찾아보았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 보면서 조선시대에는 사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기운을 소중히 담아 그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초상화의 알록달록 예쁜 색들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쪽이나 치자과 같은 식물에서 색을 얻기도 했지만, 예쁜 색깔의 돌을 갈아 물감을 만들기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썼던 석채(돌을 갈아 만든 물감), 토채(흙으로 만든 물감), 유기 안료(곤충, 동물 뼈를 갈아 만든 물감)를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았어요. 석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돌가루의 입자가 고울수록 색이 연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직접 진한 녹색을 띤 석채를 막자사발(유발)에 갈아 각자 원하는 색을 만들어 냈어요. 아이들은 그 가루가 어떻게 물감이 되어 종이에 발리게 될지 궁금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보다 좀 더 끈끈한 성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옛날 물감에 꼭 필요한 아교까지 차근차근 알고 난 후 직접 석채와 아교를 섞어 초상화에 채색을 시작했어요.

박물관에서의 체험이라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체험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한 스스로 탐색하고 관찰하는 체험을 통해 학습 효과도 훨씬 높아집니다. 어린이 갤러리 토크는 바로 이렇게 아이들의 신체와 생각을 여는 과정입니다. 어린이들은 유물과 마주하고 실물을 탐색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며 생각을 키워 가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어린이 갤러리 토크는 선생님이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이야기한 후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 갤러리 토크의 중심은



바로 '대화'를 통한 생각 키우기입니다. 아이들이 유물을 감상하고 실물 자료들을 관찰하며 스스로 이야기꺼리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이야기하기, 유물을 통해 그것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에 대해 상상하기, 현재의 것과 비교하여 추측하기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은 무한히 확장하게 됩니다.

박물관에 갈 때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한다는 의무감은 갖지 마세요. 그저 같이 바라보면서 유물의 쓰임새, 특이한 형태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눠 보세요. 아이들은 다른 책을 볼 때나, 다른 장소에 갔을 때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때의 기억에서 분명 도움을 받을 테니까요. 국보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그 유물에 대해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며 추억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 박물관을 찾아 아이들과 유물을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❸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매달  
마지막  
수요일

# 문화가이닝

국립전주박물관이 활짝 열린다

## 전시관람 시간 연장

저녁 9시까지 박물관 관람이 가능

관람시간 | 09:00 ~ 21:00

장 소 | 모든 전시실(어린이박물관 포함)

## 전시유물 설명

큐레이터의 전시유물 설명 및 질의응답

11월 30일 16:00 | 미술실

12월 28일 | 전시실

※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 영화상영

시간, 장소 : 17:00/문화사랑방

11월 30일 | 터키(애니메이션/전체관람가/91분)

12월 28일 | 백투더퓨처1(SF,코미디/12세관람가/167분)

※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

〈문화가 있는 날〉 청소년 문화공연

## 2016년 「신나는 예술여행」 전주공연 ‘안데르센의 나이팅게일’ 개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새’ 나이팅게일의 동화를 현대식 기법으로 표현한 안데르센의 명작으로 시청각 감각을 자극하는 한국과 덴마크 합작품입니다.

텅 빈 공간, 박스로 무대가 채워지고 박스에 투영된 영상은 순수한 자연과 복잡한 현대의 대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덴마크 유명 연출가 Torkild Lindebjerg가 마임, 박스, 영상, 그림자 등으로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연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공 연 명 안데르센의 나이팅게일

공연일시 2016. 11. 30(수) 13:30

공연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공 연 팀 극단 자유마당

공연시간 50분

대 상 전주시 소재 장애학교 재학생 초대  
(전주은화학교)



## 전주소리문화관 소리, 꽃이 되다

꽃심의 도시 전주의 얼을 느낄 수 있는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주소리문화관, 2016년도 원송이해를 맞이하여 전주소리문화관 상설 공연 '2016 소리, 꽃이되다!' 공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전통 판소리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 간

**2016. 5. 7 - 2016. 12. 31**

매주 화 ~ 토 4:00pm

장 소

전주소리문화관 대청마루

공 연 료

10,000원

공연문의

**063.231.0722**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6년 다섯번째 특별기획전

# 아름다운 공유, 군산이야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들과 박물관에서 소장한 유물을 통해 군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특별기획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과 민족의 아픔 등을 엿볼 수 있는 소달구지 등 유물 200여 점을 중심으로 총 6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시를 통해 기증을 장려하는 문화도 만들어 보길 기대합니다.



**기 간**  
2016. 11. 10 - 2017. 1. 31

**장 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남원 수지미술관

남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재조명

# 남원의 재발견

수지미술관은 2016년 9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남원의 재발견(Rediscovery of Namwon)'전에 참여한 김영기, 박강용, 박상호, 이건무, 장홍철, 조현동 작가의 공예·사진·조각·회화작품을 통해 남원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재생 및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의 재발견' 전시를 더욱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KB 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지원 사업'을 통해 사전 예약시 단체에 한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술관에서 마련한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 직접적으로 작가와 관객객들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 간  
2016. 9. 3 - 2016. 11. 27

장 소  
수지미술관 본관, 별관

공연문의  
063.631.1009

# 여명 카메라 박물관 어머님들이 만들어 들려주는 민화이야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프로그램 지역특성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명카메라박물관은 올해 3월부터 민화수업 '엄마들이 만들어 들려주는 민화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화수업을 받는 계층은 적게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주부들이 주요 수강층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지원 하에 민화수업에 드는 비용과 수업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연말 민화전시비용은 전부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여명카메라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한재섭 민화작가가 직접 진행중입니다. 민화수업의 내용은 쉽게는 호작도부터 어려운 내용의 모란도, 응용민화분야인 민화부채, 민화차상, 민화보석함, 민화탈 등 다양한 민화분야에 어머님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11월 정도에 수강생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아중리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1주일 정도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전주 미술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미술관

전주미술관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옆 르윈호텔 내에 위치하며, 2013년 4월 1종 미술관으로 개관한 전주의 대표 사립미술관입니다.

전주미술관은 2016년 상·하반기에 걸쳐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고 있는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명: 명랑감성~토요일에는 한옥마을 미술관으로!)",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2016년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KB박물관 노닐기" 등으로 전시, 교육, 강연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주미술관만의 특징을 담은 양질의 다양한 체험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의 미래인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의 폭을 넓히고 인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주미술관 속 직업체험"을 2017년 12월 까지 매월 2회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북도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展

## “생동감 있는 여성과 변방의 힘”

전북도립미술관은 9월 2일부터 11월 27일 까지 “ASIA YOUNG 36” -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탈 서구적인 시각에서 아시아 현대미술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전으로 아시아 14개국 36명 청년미술가의 진솔하면서 치열한 예술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개인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아시아.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현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예술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어둡고,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을 생동감 있는 여성과 변방의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아시아 청년미술가들의 투박하고, 신선하고, 진정성 있는 현대미술을 즐기다 보면 다양한 장르와 경계를 가로 지르는 거칠고 신선한 예술적인 행위 속에서 참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 간**  
2016. 9. 2 - 2016. 11. 27

**장 소**  
전북도립미술관

**참여작가**  
아시아 14개국  
35명의 작가

**전시작품**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등  
109점 전시

## 정읍시립박물관 제9회 특별기획전 개최

# 조선 출판·인쇄문화의 Pandora, 태인방각본

태인 방각본(坊刻本)은 조선시대에 태인지역에서 민간 출판업자가 제작 및 판매를 통해 만든 책을 말합니다. 태인 사람 전이체가 1796년(정조 20)에 『상설고문진보대전 후집』을 발간하였으니 올해 2016년은 태인 방각본이 탄생한지 2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서울 경판본, 전주 완판본과 함께 조선 후기 방각본 출판을 주도한 태인 방각본을 집중 조명합니다. 전시기간 중에는 방각본토크쇼를 비롯하여 방각본 목판 제작 이야기, 옛 책 만들기, 방각본 체험 활동지, 3D프린팅 인쇄체험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추진합니다.

### 전시 내용

- 제1부 '조선시대 베스트셀러, 태인 방각본'
- 제2부 '태산선비문화의 꽃, 태인 옛 책'
- 제3부 '다른 지역의 방각본'
- 제4부 '직지의 편저자 백운화상을 기억하다'



### 기간

2016. 9. 8 - 2016. 11. 6

### 장소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 김환태 문학관·최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 최북미술관 교육프로그램“어린이 미술교실 6기-전통을 배워요!”

| 기 간                                                  | 인 원            | 내 용                |
|------------------------------------------------------|----------------|--------------------|
| 2016. 9. 24 - 2016. 11. 26<br>매주 토요일 13:30~15:30 10회 | 20명(초등생 1~2학년) | 전통에 관한<br>미술이론과 실기 |

## 김환태문학관 교육프로그램“어린이 문학교실 2기”

| 기 간                                                  | 인 원            | 내 용                    |
|------------------------------------------------------|----------------|------------------------|
| 2016. 9. 24 - 2016. 11. 26<br>매주 토요일 13:30~15:30 10회 | 15명(초등생 3~4학년) | 문학에 관한<br>전반적인 이론과 글쓰기 |



## 전주전통문화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1월 | 흐름 프로젝트 「Must have "Love"」



흐름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한 음악을 추구하는 퓨전국악 프로젝트 팀입니다. 국악기와 세션의 조합으로 연주공연, 국악뮤지컬, 창작공연 등 관객들과 함께 소통 할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ust have "Love" 는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질수 있는 일들을 극, 노래, 연주로 표현한 창작뮤지컬입니다. 가야금, 대금 등의 악기로 편곡된 대중가요를 스토리 맞게 배치하여 만남과 이별에서 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관객과 공감하며 교감하는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공연일시 | 2018. 11. 30 수요일 오후7시    공연장소 |한벽극장    관람료 | 무료

## 12월 | 이희정&소리꽃 「행복배달부 <희야, 배달가자>」



국악에 대한 무한열정으로 다양한 레퍼토리와 연주양식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 만든 퓨전국악단 '소리꽃'은 장르불문 다양한 음악을 국악 선율로 재해석하여 대중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선보이고 소통하는 공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가락이 되고 장단이 되어 알알이 마음에 와 닿을 때 신도 나고 흥도 납니다. 행복배달부 <희야, 배달가자>는 국악의 새로운 장르 한가락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악뮤지컬입니다. 소리꾼 스스로가 '광대'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풀어 주려 합니다. 극 중 주인공 희야의 노랫가락

과 춤추기 좋은 활달한 장단에 까딱까딱 몸을 움직여보면 “잊고 싶은 일들,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내고 깃털처럼 가벼운 맘과 몸으로 희망의 기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일시 | 2016. 12. 28 수요일 오후7시 공연장소 | 한벽극장 관람료 | 무료



## 전통문화관 교육체험

**| 체험종류 |** 비빔밥 등의 조리체험, 각종 한지공예 염색, 칠보, 도자기, 매듭, 풍물, 소리, 탈춤, 다례, 민화, 혼례 등

**| 체 힘 비 |** 평균 체험비 1인 7,000원~11,000원 이상. 품목 및 연령에 따라 다양합니다.

**※ 유의사항** 체험 신청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단체접수만 가능) 반드시 스케줄 상담 후 사전 예약하여 진행하셔요 합니다.

문의전화

063.280.7046, 7030

# 가을 잎

최승범

이 철 바람소릴  
뉘가 비가됐느냐

구십춘광엔 미영털을 벗고 삼복철 푸른 노래도 마냥 가꿔 불렀다  
한로절 맑은 이슬 물개어 고루 곱게 풀어 놓은 하늘 아래  
내 마지막 수도 놓았거니 무슨 슬픔 있으랴

어느 날  
바람결에 뚝 진대도  
하냥 춤추며 돌아갈 것을

시인 최 승 범  
전북대학교(영예교수)  
현 고하문학관 관장



# 조선왕릉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릉' 전주전시

## 朝鮮王陵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2017.02.21. <sup>Tue</sup>

— 04.09. <sup>Sun</sup> 예정

장소\_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